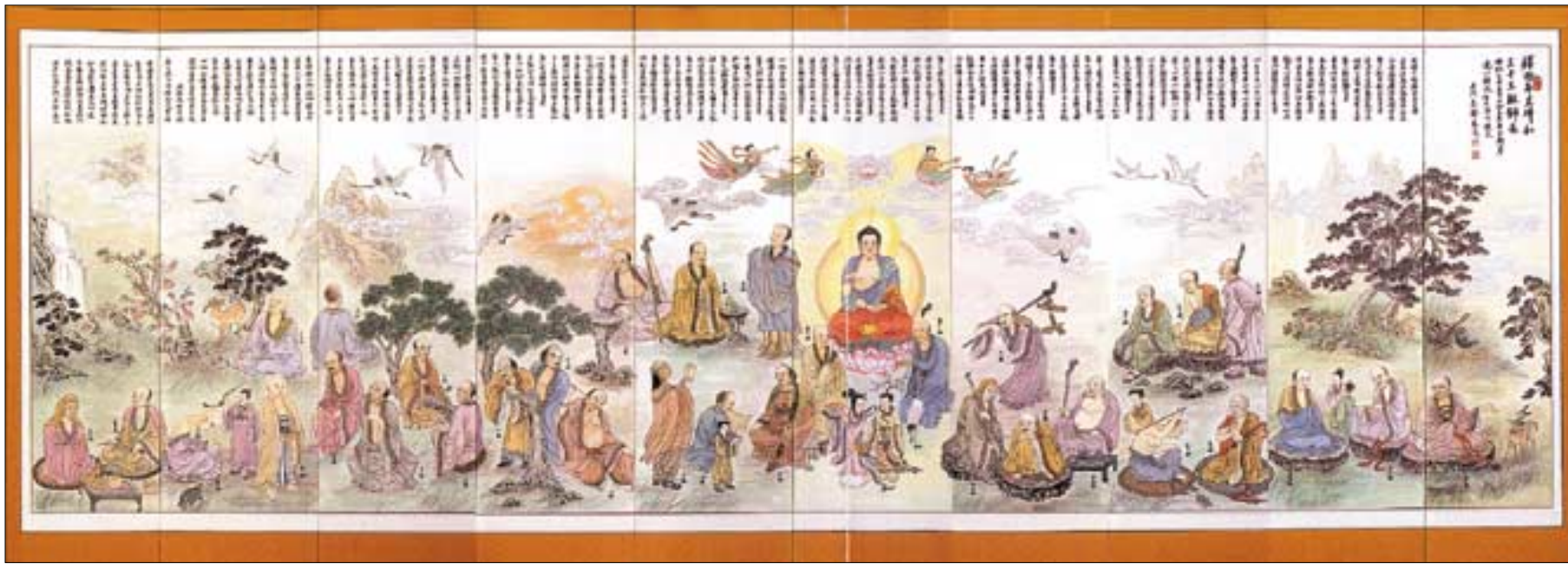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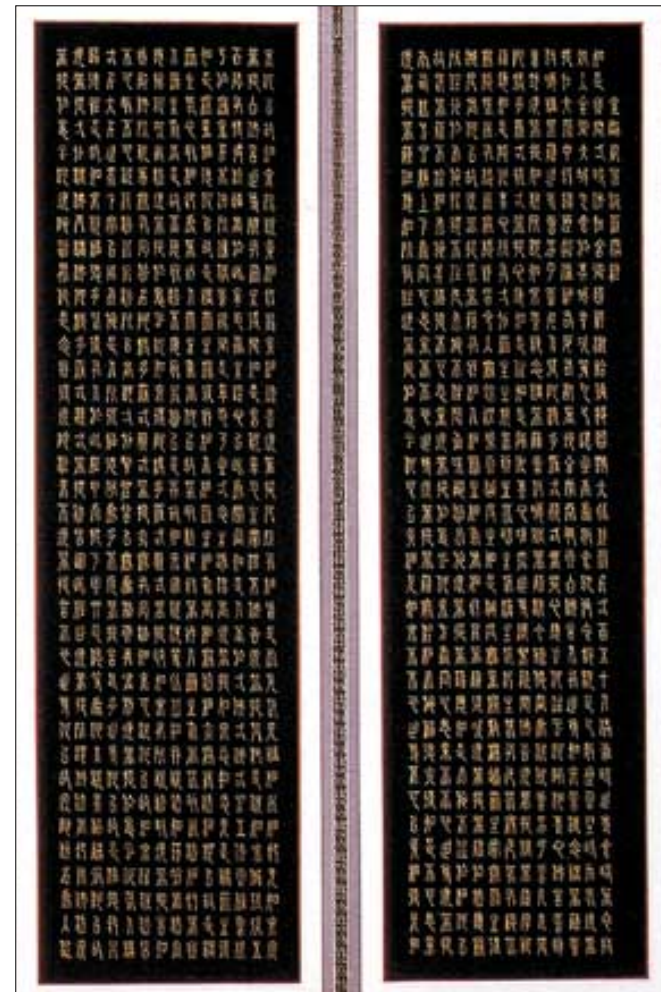


무념무욕 선사화...역대 조사와 禪문답 하듯

탄정 스님의 예술세계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6조 혜능스님까지 33인의 위대한 스님들을 그린 '33조사도'.



◇전서체로 쓴 금강경 병풍(일부).

주와 객, 사유와 비사유를 떠나, 불교 실천수행의 핵심인 선(禪)은 단순회 호흡과 동작, 자세 등의 의식에만 국한된 것 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書畫)이라는 서로 상이한 매개체의 조화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탄정스님의 선사화 역시 진흙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과도 비견될 수 있다. 바로 스님의 선사화 작품들은 수행자 본래의 순수한 성품 추구를 통한 구도의 자세로 철저한 선수행을 동반한 가운데 일체의 분별을 떠난 깨달음의 정신이 구현된 무념무욕의 상태에서 나온 작품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어느 선사화의 그것과는 달리 독특한 필선과 함께 다양한 주제와 화재로 명성이 높은 탄정스님 선사화의 세계는 보면 볼 수록 오묘하다. 말

이 일반 서화가 아닌 선사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탄정스님에게 선에 입각한, 선기가 느껴지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은 오매불망 갖고 있던 '화두'였다.

탄정스님은 자성을 찾기 위한 선수행에도 무성계 매진했다. 아예 출입구를 막고 몇 년이고 바깥 세상에 나오지 않는 토굴에서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6년간의 참선 정진에 들기도 했다.

이렇게 목숨을 내건 수행과 구도의 과정이 이어지자 스님이 품어왔던 화두도 자연스레 풀리게 되었다. 스님의 작품활동도 이때부터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후비강암이라는 뜻밖의 병을 만나면서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제 병 때문에 병원 전체의 의사선생님들이 모

'禪機 느껴지는 그림' 화두로 참선 정진

과 글을 통한 직접적인 의사전달 수단과는 또 다른, 스님의 작품에 깊이 내재된 수행력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선문답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듯 느껴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자기성찰의 폭을 더해 주고 있다.

'선서화(禪書畫)'란 용어 자체부터가 생소했던 70년대, 그림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여러 스님과 화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구하는 등 스님의 열정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아무리 실력이 늘어난 가도 웬지 모를 공허는 메울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선의 기운이 담겨있는 진정한 선서화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는 것이 스님의 토로다.

아무리 기교가 넘쳐나고 실물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다 해도 이

여 회의를 할 정도였지요. 그때 눈과 턱 등 얼굴의 절반을 들어내야 하는 대 수술을 해야한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또 살 확률도 20%를 넘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지요"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암과 그 후유증으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마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현몽하여 자비를 내렸다. 두 불보살님의 가피에 보은하는 길이 바로 선사화를 통한 불법 흥포의 길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작품활동에 힘을 기울여 오고 있다.

바로 몇몇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도 힘들어 한다는 암치료법인 방사선 치료를 받은 스님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을 부여잡고 마지막 남은 목숨까지 내던져 버린다는 일념으로 붓을 들고 작품활동에 매달렸다. 스님의 예술에 대한 열망에 불보살님이 감명하셨는지 의사들도 놀랄 만큼 건강이 호전됐다. 기도도 하는 스님의 작품활동은 더욱 왕성해져 가고 있다.

"선서화는 불가 선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오직 선적 깨달음을 붓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갈등, 공허함, 불안, 분노 등을 정화시켜 줍니다."



연꽃



백의관음도

"선정 상태에서 그린 작품만이 선사화"

30년 화력 집중 전시회 갖는 탄정 스님

"요즘 아무나 보살도나 달마도를 그리고, 또 아무 작품이나 선사화라 하는데 그것을 잘못입니다. 진정한 선사화란 지극한 수행을 통한 선정(禪定)의 상태에서 이러한 정신을 붓으로 표현한 작품만이 진짜 선사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禪)'이란 붙인다고 그것이 불법의 정수인 '선'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탄정스님의 지론이다.

2001년 4월 전시회를 가진 후 2년여 동안 작품구상에 들어갔던 탄정스님은 스님의 작품을 잊지 못하고 있는 불자들의 간청에 못이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선사화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스님의 30여년 화력의 총

결의의 기분을 익힌 탄정스님이 진정한 선사화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또 있었다. 30여년전, 여러 도반스님들과 떠난 만행길이었다.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 지게 되었는데, 그 때 그 집 벽에 예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걸려있었다. 그 그림을 보고는 문득 '우리 불교도 그림으로 포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선사화를 그리게 된 시작이다.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개인전과 특별전을 가졌고 각종 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또, 중국예술인과의 교류도 활발히 가져 중국 길림성 문묘박물관과 사천성 중국문화박물관에 스님의 작품이 소장돼 있으며, 현재 중국 군성예술대학 미술과교수, 길림성 체육학교 명예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30여년간 하루라도 붓을 놓아본 일이 없을 정도로 화업(畫業)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 정진해 오고 있다. 탄정스님은 불법의 핵심을 담은 금강경과 관세음보살도, 달마도를 비롯한 산, 물, 나무, 꽃 등의 자연을 소재로 한 꾸밈없는 작품들을 즐겨 그린다.



◇저극한 수행력으로 그려진 작품만이 선사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탄정스님.

금강경·보살도·자연을 즐겨 소재로

결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내 선불교 예술의 '명품'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작품들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탄정스님이 처음 붓을 잡게 된 것은 지난 59년, 당대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친 용봉큰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글씨를 배우면서 부터다. 당시 용봉스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정도로 혹독한 경책을 받으며 엄한 교육을 받은 스님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탄정스님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블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순수한 탄정스님의 예술세계는 삭막해져 가는 현대에 사는 이들에게 따스하고 깨끗한 본래심(本來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탄정스님은 "맑은 불자들과 시민들이 선사화를 관람함으로써 우월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어 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시켜 이 사회에 밝고 희망찬 기운이 일어났으면 한다"는 원력을 펴 보았다.

- 이력
 - 1944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
 - 59년 포항 오어사로 출가
 - 62년 동산스님 계사, 용봉스님 은사로 수계
 - 89년 포항시 문화원 전시실에서 첫 전시회를 가진 이래 100여차례 개인전 개최
 - 제2회 불교문화예술전 특선 수상
 -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 우수상 수상
 - 제6.9회 한국미술대상전 은상 수상
 - 제8회 한국미술대상전 금상 수상
 - 98년 한중우수작가선발전 우수작품상 수상
- 경력
 - 한국정예작가협회 이사 역임
 - 한국현대미술인협회 이사 역임
 - 중국 군성예술대학미술과 교수(현)
 - 중국 길림성체육학교 명예교장(현)
- 작품이 소장돼 있는 곳
 - 통도사 성보박물관
 - 중국 길림성 문묘박물관
 - 중국 사천성 중국문화박물관 등

'금강경 전서체' '33조사도' 등 150여 선사화 전시



탄정스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마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현몽을 꾸어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 장소 : 울산 문화예술회관
- 일시 : 불기 2547(2003)년 4월 12 ~ 18일(7일간)
- 개막식 : 2547년 4월 12일(토) 오후 2시

우리의 삶은 과거의 인연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가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전시되는 탄정스님의 150여 선사화는 스님이 암이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오직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루어낸 정성어린 작품들입니다.

4월 12~18일 7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서
수익금은 세심선원 중창불사·불우이웃돕기에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 중 한국 최초의 '금강경 전서체' 작품과 함께 부처님으로부터 6조 혜능대사까지의 전법도 '33 조사도'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접하기 힘든 대작이라 사료됩니다.

전시회의 수익금은 세심선원의 대웅전 중창불사 및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오니 제방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포항세심선원전경

세심선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656번지
TEL: (054)251-4873 / HP: 011-808-4873 / FAX: (054)252-4873